

DSME가uzzi

vol. 245 | 2018 상반기

이번호 이야기 “다녀왔습니다”

04 아빠 회사에 다녀왔습니다

06 그림으로 읽는 뉴스 : 수주

08 사진으로 읽는 뉴스 : 2018 상반기

10 CEO 메시지

12 우리동네 지도 - 거제면



“다녀왔습니다. ‘DSME가족지’란 이름으로 다시 인사 드립니다.”

경영 정상화를 더 앞당기고, 무재해 작업장을 만들고자 애쓰시는 사우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이해하고 응원하는 가족 마음을 더하고자 가족지를 3년 만에 재창간 합니다. 상·하반기 찾아 뵙겠습니다.

사보를 가족에게 전해준 사우 30명 (협력사 포함)에게 10만원 식사권을 드립니다.



- ▶ 참여 기간: 7월 15일(일)까지
- ▶ 참여 방법
 - 가족과 가족지 보는 사진을 카톡으로 송부
 - 연락처 010-9477-9544로 친구 추가
 - DSME가족지를 홍보하는 사진과 글을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SNS에 올리시거나(#ILOVEDSME 태그필수) 읽은 소감(기사꺼리 제안 포함)을 보내 준 사우 우선 선정

이 사회에 시루떡 같이 사는 사람이 당신만은 아닐 것입니다. 어느 직장인이나 온 몸이 녹초가 되도록 사람에, 일에 시달리지요.

조선소 일은 더 쉽지가 않지요? 때로는 밤, 주말도 없이 빌딩만한 선박을 만들어내는 당신.

그리고 더러워진 근무복을 회사에 놔두고 깨끗한 근무복을 입고 퇴근하는 당신.

회사에서 받은 스트레스가 티가 날까 집에서 입을 꼭 다무는 당신.

식구들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아서 입을 압니다.

“다녀왔습니다”라고 말하기까지 고된 하루를 보내고 있는 당신을 내가, 우리 딸·아들이 응원하고 있음을 기억해줘요.

— 당신의 아내 면정이가



* 조은진 사우(CCS 생산 1) 가족의 실제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촬영에 협조해주신 아내 차면정, 자녀 조준민·예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다녀왔습니다”라고 말하기까지

자기 오늘 뭐 먹고 싶어? 백숙 얼른 해줄게 기다려봐~♥♥



오늘 *아빠 회사에 다녀왔습니다

자녀 시선으로 사우들이 하는 일과
조선상식을 전합니다.
첫 이야기는 선박생산2담당
선박의장2부 전장6반이 열었습니다.



1 5월 12일 날씨가 맑음



“회사 땅 넓이가 490만㎡
(약 150만평)이란다.”
오늘 아빠 회사에 왔다.
아빠 말로는 회사 안 도로를
한 바퀴만 걸어도 5시간 걸린단다.
우와~ 신뢰관에서 배 모형도 봤지만
얼른 실제 배 모습을 보고 싶다.



2 버스 타고 둘러본 공장

“공장에서 철판을 자르고 붙여 블록을 만들면
도크에서 블록을 쌓아 배를 만든단다.”
내가 좋아하는 레고 블록이랑 똑같은 한데
엄청 큰네? 하긴 배도 높이가 아파트 10층,
길이가 100층 정도되니깐. 저런 높은 곳을 수
차례 오르락 내리락 하느라 아빠 다리에
알통이 생겼겠네!



* 회사는 '야드-승선 투어'를 직원가족(협력사 포함)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가족들이 직접 야드를 둘러보고 배 위에 올라가 보며 아빠가 하는 일의 가치를 느끼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3 배 모양 완성하는 도크

“이 곳은 축구장 8배 되는 수영장이라고
보면 돼. 배 겉모습을 완성하면 도크에
바닷물을 가득 채우고, 커다란 문을 열어
배를 바다로 내보내.”
대박! 커다란 배 4척을 동시에 만들고 있었다.



4 드디어 배 위

“아빠는 여기 보이는 기계들이랑 배
구석구석에 있는 수만 개의 전등,
통신장치, 기계를 연결하는
전기 통로 만들어.”
선장님이 운전하는 방에는 컴퓨터가
잔뜩 있었다.
배 1척에 서울~거제 거리(400km)
이상의 전선(500km)을 설치한다니
보통 일이 아니구나.



5 어느덧 견학이 끝났다.

“뉴스에 나온 세계 최우수 선정 배,
대통령이 칭찬한 빙하 부수는 배를
모두 아빠가 만들었다.”
우리 아빠는 세계 제일의 엔지니어였구나.
도면 보느라 전선 설치하느라 피곤할텐데 ~
그래! 이번 주말엔 아빠가 잠만 자고
놀아주지 않아도 봐줘야겠다.^^*



수주

2018년 DSME 수주 지도를 펼쳐다
(6월 29일 계약 기준)



어떤 배들을 수주했나?

회사는 고부가치선박인 LNG운반선과 초대형 원유운반선에서 최강자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회사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LNG운반선 10척 (전 세계 발주 21척)과 초대형 원유운반선 15척(전 세계 발주 27척)을 수주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잠수함 현지 창정비
₩320억원



초대형 원유운반선 수주
₩1조 4,185억원



LNG운반선 수주
₩2조 14억원

상반기 - 어디서, 얼마나 수주했나?

최근 수주 실적을 보면 전 세계에서 DSME의 배 짓는 실력과 기술을 인정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회사는 올해 73억 달러 (약 7조 8,600억 원) 수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력투구하고 있습니다. 6월 29일 현재 26척 32억 달러어치를 수주해 목표의 44%를 달성했습니다.(확정분 포함시 44억 달러)
* 환율 1,100원 기준

총 26척

₩3조 4,519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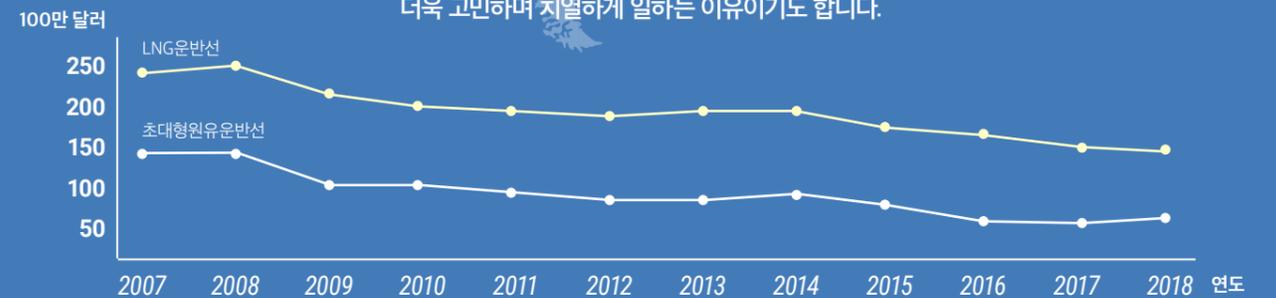


수주목표, 어느 정도 일감인가?

올해의 수주목표를 달성한다면, 우리는 2021년 상반기 물량까지 확보해 일감 걱정없이 회사를 다닐 수 있습니다.

배 값은 어떻게 변하고 있나?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꾸준하게 수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분명 희망적인 소식입니다. 하지만 선가 (이하 배 값)는 아직 개선되고 있지 않습니다. 2000년 중반 최고치를 달렸던 배 값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가 최근에서야 조금씩 개선되고 있습니다. 수주도 어려운데 이익 내기도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최근 사우들이 '어떻게 하면 배 원가를 더 낮춰 우리 이익과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까?'를 더욱 고민하며 치열하게 일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LNG운반선은 2017년부터 17만4,000m³급 LNG선을 기준으로 한 가격임

2018년 상반기

영국 군함, 모두 고향으로

영국 군수지원함이 6월 23일 옥포 야드를 떠났습니다. 이로써 회사는 영국해군으로부터 의뢰 받은 *군수지원함 4척 모두를 인도했습니다. 이 군함들은 회사가 2012년 3월 모두 8,000억 원에 수주했습니다. 해군 강국인 영국이 역사상 처음으로 다른 나라에 군함 건조를 맡긴 사례였지만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배를 인도받은 영국해군은 “우수한 한국기술로 영국해군의 능력을 강화할 수 있었습니다. 한-영 최고의 기술력이 결합된 결과물이자 국제 협력의 위대한 증거물”이라고 평했습니다.

*이 군함은 영국 항공모함이 38일 동안 항해할 수 있는 연료와 승조원 1,600명이 507일 동안 마실 수 있는 물을 한 번에 공급합니다.

4 인도 완성된 배를 선주에게 넘김



사진으로 보는 뉴스

2018년 6월 JUNE

지난 6년간의 건조 과정



1 강제절단

생산 시작 단계. 성공을 바라며 촛불을 켜 후 관계자들과 떡을 나눠 먹음.



2 진수

외형을 갖추고 도크를 나와 안벽으로 이동하는 단계. 도크에 물을 채운 후 예인선으로 군수지원함을 바다로 이끌어 내는 모습



3 명명

배 이름을 짓는 단계. 선주 측 여성 관계자가 군함명을 외치고 도끼로 줄을 끊어 축하 박을 터트리는 공식 행사를 가짐.



5 영국해역투입

제일 먼저 인도된 군수지원함이 지난 3월 항공모함에 보급 작업을 시작함.



MAY

5월

어린이날, 온 가족이 함께 걸었어요



노동조합이 개최한 '가족과 함께 걷기대회'가 어린이날 능포동 장미공원~매립지 일대에서 열렸습니다.

1월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첫 산업현장 방문지로 야드를 1월 3일 방문했습니다. 침체에 빠진 조선소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날 문 대통령은 현장을 둘러보며 “사상 최악의 불황 속에서도 북극을 향해 희망의 쇄빙선을 띄웠듯 함께 희망을 완성해냅시다”라는 내용의 연설을 하고, 사우들과 점심식사도 함께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방문 “조선소가 일어서길!”



JANUARY



대우조선해양 임직원 가족 여러분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잠시 휴간했던 '해오름터 가족지'를 3년여만에 다시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간간히 가정으로 편지를 보내기는 했지만, 회사 소식을 여러분께 직접 알리며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아쉬웠습니다. 여러분도 회사 소식을 외부 언론을 통해서만 접하는 것이 답답하셨을 것이라 생각하니, 회사와 가족간 가교역할을 할 '가족지'의 재발행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지난 3년의 시간은 생존을 위해 살을 도려내야만 하는 고통스러운 순간의 연속이었습니다. 이런 기간을 참아내며 회사를 위한 희생에 묵묵히 동참해 주신 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행히도 회사는 지난해 채무 재조정과 채권단의 추가 자금지원을 받았고, 6년만에 흑자전환에 성공하는 등 재무적으로 많이 튼튼해졌습니다. 또한 개선된 재무상황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수주활동에 나서며 올 들어 현재까지 확정된 계약만해도 44억달러에 이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하면 5배 이상 늘어난 수치입니다.

이는 회사가 경영정상화의 수순을 잘 밟아오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지만, 이것만으로 회사가 완전히 정상화 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국민들께 약속 드린 자구계획도 끝까지 이행해야 합니다. 생산측면에서는 회사가 거의 정상화 됐다고 자부하지만, 생산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우리 힘만으로 확보하기에는 아직도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여전히 채권단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구조조정 과정에서 회사에 대한 안팎의 신뢰와 내부 임직원들의 열정이 예전만 못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데, 이를 회복하기 위해 전개하고 있는 여러 가지 활동 중 한 가지가 바로 '가족지' 재발행입니다. '가족지'를 통해 좋은 일, 나쁜 일, 기쁜 일, 힘든 일을 함께 나누면 회사와 가정을 제대로 된 반석 위에 올려놓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런 활동들이 여러분 모두가 만족할 만한 수준이 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회사는 임직원 및 가족 여러분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함께 걸어가고 있다는 신뢰를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회사와 조선산업을 둘러싼 환경은 과거 우리가 경험했던 방식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파괴'와 '창조'를 통한 혁신만이 우리의 미래를 열어 줄 것입니다. 이를 위해 임직원의 노력은 물론 가족 여러분의 응원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저도 우리 모두의 생활터전인 대우조선해양이 안정되고 즐거운 회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제 곧 장마와 함께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고 즐겁고 행복한 여름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6월 29일
대우조선해양 대표이사 사장

정승권



거제 (면) 지도

다음 호는 '목포동'을 소개합니다.
문화제, 산책코스, 맛집 등
명소를 추천해주시거나
이번 호 숨은그림 정답을 촬영해
보내준 사우 20명은 추첨을 통해
문화상품권(만원권)을 드립니다.

참여방법

010-9477-9544 카톡으로
숨은그림 정답 사진과
사우 성명, 소속, 연락처를
함께 송부

사우들이 추천하는
우리 동네 명소를 알려
주세요!
숨은그림 찾기도 해보세요!

숨은그림 : 삼각지, 버섯, 시계,
연필, 내일클로버

다! 여기봐!
옛날사람들이 다니던 학교로!
거제 공공교육 시골로
세종대 전로, 향토대!

다~ 아바라! 조선시대 성터예요?
거제면이 한눈에 다보여요!

대구를 막기위해
세종대왕남원에 세웠대!

거제도



거제향교
마을 수호목이던데,
200년 된 부부나무지
너만 다 몇배는 크대!
아빠가 팔은 안아져지도 안해!

거제유관묘굴
하동미도

목산성지

외간리동백
(해동편지)
딸 거제 향신!

스포츠파크
10~11월, 선풍속제가 열린다지?
기리기 위해 지은 곳!

거제서원
유한정씨열선생
기리기 위해 지은 곳!

부개천서당
낙거북

거제현관아
세진암

거제초등학교
거제에서
거제 오려볼 학교
1907년에 개교,
아빠가 연마들이 들
산수지었다는 석조전

내간리
대왕산 (459.5m)
큰왕산 (1100m)
소망리

농업개발원
유한정씨열선생 열려다지?
기리기 위해 지은 곳!

화남산 (308.5m)
아름다예테라미파크

오수리
연산 (25.4km)

문재인대통령 생가
19대 문재인 대통령이
거제도 출신!

무수단
40년 전통 목욕탕!

명진리
한국전쟁때
괴미들을
돌아들지

남해

죽림해수욕장